KNS	중급문법반	Grammar Review Test to 부정사와 동명사의 이해	Name	
	3차시		score	(P / F)

(1~5) 다음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부분을 바르게 고치고 그 근거를 쓰시오.

1. From the day we are born, our bodies changing in response to our environment.

정답 : _____

근거 : _____

2. Yesterday I went to a bookstore buying a book about computers.

정답 : _____

근거 : _____

3. It's time we to leave now.

정답 : _____

근거 : _____

4. According to Jo, his next goal is swim across the Yangzi River in China.

정답 : _____

근거 : _____

5. The purpose of Earth Day is for reduction our footprint on our planet.

정답 : _____

근거 : _____

6. 짝지어진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It seems that the woman in the picture is smiling.

= The woman in the picture seems _____ _____ _____ .

(7~8) 짝지어진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바꾸어 쓸 때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7.

The puzzle is too difficult for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to solve. = The puzzle is so difficult that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cannot solve.

_____ → _____

8.

The school is so rich that it gives its students many kinds of scholarships. = The school is enough rich to give its students many kinds of scholarships.

_____ → _____

9. 동사 catch를 활용하여 다음 글의 빈칸 (A)~(C)를 채우시오.

Daphne was very fast, but Apollo was faster. Apollo was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Daphne. She did not want ___(A)___. So she asked her father, Peneus, for help. "Father! Help me!" she cried. "Don't let Apollo ___(B)___ me!" That moment, right before Apollo could catch her, Daphne's body began to change into a tree. To stop her from ___(C)___, Peneus had turned his daughter into a laurel tree. *laurel tree 월계수

(A) _____

(B) _____

(C) _____

10. 다음 글의 어법상 <u>틀린</u> 것을 고르고 바르게 고치시오?

I've always been shy. I've become accustomed to being called "the quiet one." My mom tells stories of me hide my face away whenever we had company when I was just a toddler. As I grew, so did my anxiety. I transformed into a more receptive, sensitive young man. These were optimum conditions for anxiety to grow, like warmth and dampness to bacteria. With my quiet nature, I felt increasingly isolated from people. I felt like a child in a group of adults. Consumed by my anxieties, I would think people were judging me by the words "quiet," "not funny," or worst of all "boring."

정답 : _____

근거 : _____

정답

1. changing → change

근거 : 주어 our bodies의 동사가 올 자리이다. our bodies가 복수 주어이므로 동사도 복수형 change가 되어야 한다. From the day [we are born]은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구.

2. buying → to buy

근거 : 서점에 간 <목적>을 말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우므로 ~하기 위해'의 의미인 to부정사(to buy)가 알맞다.

3. we → for us

근거 : 문장의 주어는 It인데 떠나는(to leave) 주체는 '우리'이다. to부정사의 의미상주어는 <for + 목적격>의 형태로 to부정사 앞에 쓴다.

4. swim → to swim

근거 : 주어(his next goal)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어 자리이므로 명사적 역할을 하는 to부정사(to swim)가 알맞다.

5. reduction → reducing

근거 : 전치사(for) 뒤에 명사와 동명사가 둘 다 올 수 있으나 our footprint라는 목적어를 가지면서 동사의 성질까지 갖고 있는 것은 동명사이므로 reducing이 알맞다.

6. to be smiling

(it seems that S V = S seem(s) to-v의 문장전환이다. 주절의 동사 seems의 시제는 현재이고, that절의 동사 is smiling의 시제는 현재진행형이므로 to부정사의 시제도 단순형이되 현재진행형인 to be smiling으로 쓰면 된다.)

7. solve → solve it

(so + 형용사[부사] + that + S +cannot + 동사원형>의 문장 전환에서 that절도 완전한 문장 구조를 취해야 한다. solve는 타동사로 목적어를 취해야 하므로 solve의 목적어 the puzzle을 대명사 it으로 바꾸어 표기해야 한다.)

8. enough rich → rich enough
<so +형용사[부사] + that S +V = 형용사[부사] + enough +to-v>의 문장 전환에서 enough(충분히)는 부사로,형용사 뒤에서 형용사를 수식하므로 rich enough의 어순이 되어야 한다.

9. (A) to be caught (B) catch (C) being caught

다프네는 아주 빨랐지만 아폴로가 더 빨랐다. 아폴로는 다프네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잡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아빠인 페네우스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빠! 도와주세
요!"라고 그녀는 외쳤다. "아폴로가 나를 잡게 놔두지 마세요!" 그 순간, 아폴로가 그녀를 잡을 수 있기 바로 직전에 다프네의 몸이 나무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페네우스는 자기 딸을 월계수로 바꾸었다.

(A) 문맥상 다프네가 원하지 않은 것은 아폴로에게 '잡히는' 것이었다. 따라서 catch는 수동형으로 써야 하는데 빈칸 앞의 동사 want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므로 to부정사의 수
동태 to be caught가 알맞다 (B) <let +O + C> 구조이고 아폴로가 '잡는' 것이므로 사역동사 let의 목적격보어로 원형부정사 catch가 알맞다. (C) stop A from v-ing(A가 ~하는 것을
막다)의 구조이므로 catch는 동명사의 형태여야 한다. 문맥상 그녀가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her와 catch는 수동의 관계이다. 따라서 동명사의 수동태 being
caught가 알맞다.

10. 두 번째 줄 hide → hiding
근거 : 주절의 동사는 tells이며, 앞에 있는 전치사 of를 볼 때 <전치사 of+ 의미상주어 + 동명사>의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hid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난 늘 수줍은 성격이었다. 나는 '조용한 애'라고 불리는 데 익숙해졌다. 우리 엄마는 내가 겨우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누군가와 같이 있게만 되면 얼굴을 숨기곤 했던 얘기를 해 주신다. 내가 자라면서 내 불안도 함께 자랐다. 나는 보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청년으로 변했다. 이것들은 온기와 습기가 박테리아에게 그러하듯이 불안이 자라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되었다. 나의 조용한 성격 탓에 나는 점점 사람들에게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어른들 무리에 끼여 있는 아이와 같이 느껴졌다. 내 불안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조용한', '재미없는', 아니면 그중에서 최악인 '따분한'이라는 말들로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